

남 북한 통합문예사의 쟁점을 주제로 삼은 본 학술대회는 ‘문예사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 문화의 소통과 통합을 준비하는 작업이다.

특히 남북문예를 관통하는 공통의 화두를 숙고하는 한편 러시아, 일본 등지에 거주하는 해외한민족 문화에서 통합문예사의 고리를 찾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남북 통합문예 가교로서 ‘아리랑’을 살펴보는 한편 한국영화와 탈북 문제, 고려인의 미술과 재일조선인 북송 서사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남북의 틀을 넘어 지정학적 경계를 가로지른 횡단과 이주의 여정에 주목할 것이다.

아울러 소위 천리마 시기 북한에서 인민을 향해 창작된 시, 경희극의 양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남북 문예의 이질화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찾아오시는 길



1. 학교입장로
2. 도서관
3. 박물관
4. 학생회관(기숙사)
5. **울국기념도서관**
6. 안동공작관
7. 사회과학관
8. 제1공학관
9. 제2공학관
10. 상설전시관
11. 학생회관
12. 학교입장로
13. 대운동장
14. 주차장
15. 학교대학
16. 안서정
17. 공강
18. 안서호
19. 제3공학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330-71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119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예술대학 D동 206호

Tel. 041-550-3798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6회 전국학술대회

횡단과 이주

: 남북 통합문예사의
쟁점(2)

일시 2016년 4월 20일(수) 13:00-18:00

장소 단국대학교 울국기념도서관 2층 다목적실

주최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후원 단국대학교, 한국연구재단

제1부 (13:00-15:20)

남북 통합문예사의 고리들

사회 박덕규 (단국대)

주제발표 1. 박은혜(단국대) / 토론 임옥규(단국대)

북송 재일조선인의 문학적 회고

-강귀미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13:00-13:40)

주제발표 2. 정영권(단국대) / 토론 박우성(동국대)

한국 독립영화에서 탈북자의 장소/공간과 정체성

-〈처음 만난 사람들〉과 〈무산일기〉를 중심으로

(13:40-14:20)

주제발표 3. 박계리(단국대) / 토론 홍지석(단국대)

재소 미술가 변월룡

(14:20-15:00)

휴식 (15:00-15:20)

제2부 (15:20-17:20)

북한문예의 서정과 감성

사회 김영운 (한양대)

주제발표 1. 배인교(단국대) / 토론 이윤정(한양대)

북한의 아리랑류 민요풍 노래의 대중성

-2000년대 이후 아리랑류 악곡을 중심으로

(15:20-16:00)

주제발표 2. 김수복·조아나(단국대) / 토론 오창은(중앙대)

북한 시에 나타난 '천리마시대'의 서정적 화자

(16:00-16:40)

주제발표 3. 김미진(단국대) / 토론 이선경(이화여대)

경희극 〈산울림〉의 위상 변화와 현재적 의미

(16:40-17:20)

종합토론 (17:20-18:00)



한국문화기술연구소
Korea Culture Technology Institute